

제목	더 없는 행복	작성일	2003-12-11	작성자	남병철
수정일					

Maha mangala sutta (더 없는 행복 경전)

어리석은 자ⁱ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ⁱⁱ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 존경할만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속세에)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ⁱⁱⁱ에 살며 솔선하여 좋은일을 하는 것. 스스로 바른 서원^{iv}을 세우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깊은 학식을 연마^v하고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vi}. 몸을 삼갈줄 아는것을 배우고, 말씀씨가 유려한 것^{vii}.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하는 일이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플^{viii}줄 알며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친지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비난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악을 끊고, 악을 멀리하며 술마시는 것을 삼가라. 덕행을 소홀히 하지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경손, 만족^{ix}과 감사. 알맞은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참을줄 아는 것, 말을 온화하게 하는 것. 덕행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며 알맞은 때에
이법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수행하는것. 순결하게 행동하는 것. 성스러운 진리를 통찰하는 것. 편안함^x을 채득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세상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곳곳이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편안함을 얻는다.
이것이 곧 더없는 행복이다.

- i 재산 불릴 생각에 잠을 못자고, 지식이 떨어지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안주하는 사람
- ii 이치를 알아서 채득하며,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 사람.
- iii 수행자들이 걸식하기에 알맞은 적당한 거리, 자신의 사는곳이 도심의 유흥가 일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않으면 숲속과 다름없다.
- iv 인간의 어떠한 장애도 서원 앞에서 무기력하다.
- v 문과(文科)
- vi 이과(理科)
- vii 타인 앞에서 자기가 해야할 말을 주저없이 또박또박 하는 것
- viii 베품은 평소에 베푸는 것이다. 샘은 끊임없이 퍼내어야 물이 솟아난다.
- ix 큰것에 서원을 세우면 작은것에 불만이 없어진다.
- x 열반(마음의 평화)